

“모두를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자”

봉축사

꽃잎에 맺힌 이슬은 붉은 구슬처럼 빛나고, 푸르른 신록이 마치 비단을 펼친 듯이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봄벌이 산과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나무와 풀을 따로 비추지 않는 것처럼, 천지의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으니 삼리만상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 모두가 존귀하고 스스로 온전하여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에게 전하는 깨침의 사자후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밝혀 주셨지만 세간과 중생들은 언제나 상(相)을 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서로 장벽을 만들고 편을 갈라 반목하면서 스스로 그 속에 갇혀 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갈등과 불화로, 국가와 민족은 대립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온갖 차별하는 마음을 견어내는 것입니다.

사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自性)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로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립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아픔이 없는 사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 땀 흘린 노동자의 옷깃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열린 미소에서, 자연과 더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농민의 손길에서, 상처받은 이웃을 일깨우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품에서 우리는 부처의 세상을 봅니다.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회의 온갖 갈등과 남북의 대립, 어려운 국가 상황도 이러한 부처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면 국민의 행복과 국토의 안녕,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지혜롭고 조화롭게 국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열어주는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임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모든 중생이 일어서 기뻐하는 점으로 빛나는 날로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자비, 온 누리에 비추소서”

김희중 대주교 중앙승가대 예방 총장 원행스님에 교황청 메시지

조계종립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학교를 방문한 전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종교간대화위원장)와 환담을 나누며 종교화합을 실천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종단 시설을 찾아 축하인사를 전하는 김희중 대주교이지만 종단의 교육기관을 찾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 대주교는 교황청의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지속적인 유대를 강조했다. 이에 총장 원행스님은 종단 스님들을 양성하는 4년제 정규대학인 학교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동서양을 대표하는 우리 두 종교가 진심으로 교류를 이어가자”고 역설했다.

지난 4월25일 중앙승가대를 찾은 대주교 일행은 총장 원행스님과 교수 및 교직원 스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교정을 참배했다. 본관에 도착한 김희중 대주교는 방명록에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찬란히 비추소서!’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총장 원행스님의 안

내로 도서관과 대강당 비구 및 비구니 수련관 등을 둘러보며 학교의 현대적인 교육환경을 높이 평가했다.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극진한 예를 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총장 원행스님 역시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학교가 소장한 보물 1225호 묘법연화경 연해본 권7의 의미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며 반갑게 화답했다. 점심공양과 차담을 함께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봉축메시지 전달식이 본 행사였다. 김 대주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따뜻한 인사와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빈다”는 내용의 교황청 봉축메시지를 건넸다. 이에 총장 원행스님은 “가톨릭을 대표해 종단 승가교육의 요람인 본교를 직접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른 문명과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출가수행자를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서양을 대표하는 종교로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해 진정성 있는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언했다.

김포=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왼쪽)은 지난 4월25일 김희중 대주교로부터 교황청의 봉축메시지 전해 받고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종교가 세계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언했다.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72면 발행

무비스님 “천하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다” A5면
김용철 교수 “부처님은 평등을 말씀하셨다” A7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소수자·시각장애인·베트남 출신 주부 A8-9면
김장겸 교수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박경석 대표 ‘안전하게 사는 길, 조계종에 있다’ A12면
‘자비와 사랑’ 금곡스님과 홍창진 신부의 동반이야기 A13면
종단 지도자·교계 단체장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원효스님 탄생 1400주년에 본 탄생설화와 가르침 A22-23면
부처님이 품은 삼보공양 ‘최고의 재가법사’는... A32면

‘염천, 흐르는 물에서 하늘을 생각하다’

청계천 환하게 밝히는 전통장엄등의 세계 B1면
부처님오신날 앞둔 목포신항 법당24시 B3면

‘세계인이 함께 하는 Buddha’s Birthday’

텍사스·런던 사찰의 부처님오신날 준비 B7면

고은시인이 말하다 ‘문학과 정치, 그리고...’ B10-11면
연등 만드는 김천 청암사 승가대학 스님들 B14면
속리산 법주사 상환암에서 맞는 부처님오신날 B16면
전깃불 없던 시절 부처님오신날 추억 B19면

‘차별없는 세상, 자랑스런 불자’

‘우리시대 주인공 어머니’ 조계사 회화나무합창단 C1-3면
여명을 즐기며 다산삼매 드는 늦깎이 시인 이형근 C6면
달라도 너무 다른 ‘국악여신 박애리·팝핀 현준’ 부부 C7면
기야메 브누아 씨가 지하철에서 <금강경> 읽는 이유 C11면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이수자에게 선혜 품계 품서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이 신도 지도인력 배출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강좌 ‘신도지도자교육과정’이 오는 6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3개월간 디지털대학에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일정한 신도교육과 신행활동 자격을 갖춘 신도에 한한다.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해 포교사단 추천을 받거나, 일반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성실히 활동해 포교사단 추천을 받은 포교사들이 대상이다. 또 부동 품계 품수자 중 신행활동경력 20년 이상이거나, 발심품계를 수지하고 신행활동경력 30년 이상으로 중앙종무기관장, 교구본사 주지 스

님,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 추천을 받은 신도, 재교육을 희망하는 선혜품계 품수자도 신청할 수 있다.

3개월간 불교교리 및 소양, 포교실천역량, 수행 교육역량, 수행혁신과 불자상, 조직실천지도 역량 등 28개 강의를 진행한다. 온라인 강의 수강 외에도 입재식과 회향연수에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면 선혜품계가 품서된다. 선혜품계는 종단 신도품계제도의 가장 높은 단계로, 종단으로부터 신도지도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5월26일까지며 우편이나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내 종무행정 코너 포교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탄생의 뜻을 기리며 이웃과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믿고 찾는 동국대학교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시간

홈페이지

주 소

문의 및 예약

평일 ▶ 08:30~17:30 토요일 ▶ 08:30~12:30

www.dumc.or.kr/gj

38067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054) 748-9300